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내년부터 입양아동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까지 의료급여 확대, 기초생활수급 전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28억원)과 입양아동(34억원) 및 차상위 계층의 1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73천명, 372억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을 기초생활 수급자 전 장애인으로 확대함(138→267천명, 868억원).
- 그 외에도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9억원)와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 시설을 시범운영(농특, 175억원)함.
- 지역 암 센터 설치 등 암 관리사업(880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기반사업 등(2,687억원)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노보건기술개발(20억원), 임상시험 인프라 지원(30억원)등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예산(1,650억원)을 확보함.

저소득 장애인 8천여명에 장애인 보장구 20억원 지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장애 보장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뇌병변 장애, 정신지체/발달장애, 장루 장애인들의 보장구 지원을 위해 총20억원 규모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영역별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과 가계소득이 없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8천명이다.

- 10월 21일부터 접수하여 금년 말 지원을 완료함.
-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고려해 1차로 추천된 대상자에 한해 현장 방문, 표본 집중 실사 등을 실시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 12월말까지 요청한 보장구 일체를 지원할 예정임.
- 지원 품목은 <뇌병변 장애분야> 목욕도구세트, 식사도구세트, 워크 등 뇌병변 장애 관련 보장구 10억, <정신지체/발달장애분야> 감각인지 훈련기구, 헬스자전거, 벨트마사지 등 정신지체 장애관련 보장구에 9억, <장루장애> 세척기, 장루 주머니에 1억 등 총 20억원 규모임.

SBS 보도가짜 장애인 증명서 남발 관련 장애 진단의료기관 전문화 및 지도감독 강화

보건복지부는 2004년 10월 15일 서울방송(SBS) 8시 뉴스의“ 가짜 장애인 증명서 남발”이 보도된 의료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관계당국에 의뢰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1년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된 자중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자,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단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신규 등록 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장애 진단 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전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짜장애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내년부터 자연 분만·미숙아 치료 보험 진료비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을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 목적의 정관·난관 중절수술에 대해서는 비 급여화할 계획임.
- 자연 분만 시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보험진료비 전액을 지원함.
-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을 삭제함.
-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함.
- 자연분만 수가 인상을 검토함.

건강보험 진료비 부정청구 상시 감시체계 운영

앞으로 모든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 진료비의 부정 청구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즉,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진료비 청구 추이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최신 분석예측 기법인 **Data Mining** 기법을 이용, 부정 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 또한 현재 의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델을 치과의원·한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하여 개발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뿐 아니라 의료급여 진료비 부정청구 방지도 동 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현지 조사시(연 12~15회)마다 부정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정청구 예측 모델에 따라 2004. 5. 24.~ 7. 1.까지 45개 기관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 37개 기관에서 부정 청구가 확인되어 82.2%의 높은 적중률을 나타냄.

- 이를 계기로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치매를 특정하여 건강보험 급여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입원환자의 경우 90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병원의 경우 23,250원)중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기본진료 등에 대한 의학관리료(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진료내역에 따라 사례별로 삭감하며, 그 외 60%의 입원료는 90일이 지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타 필요한 시술을 한 경우에도 가감 없이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일반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인력 수준을 반영하여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일반병원 입원료(23,250원)의 80% 수준인 18,600원을 요양병원입원료로 산정함.

건강보험 미 가입 사업장 자진가입 신고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자진가입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자진가입 신고기간 중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함.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하철·철도역사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설치율이 **72.3%**로 나타났으며 주요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 **82.6%**, 출입구 경사로 적정설치 **76.7%**, 장애인 화장실의 고정손잡이 설치 **68.1%**, 남녀구분 설치 **31.9%** 등이며, 전체 **814개** 역사 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역사는 **552개(67.8%)**, 환승역사 **112개** 중 환승이 가능한 역사는 **96개(85.7%)**로 조사됨.
-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한 역사의 경우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2005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2005년 하반기에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임.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교육복지 5개년계획 추가

정부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등 6개 부처의 참여정부 5년간의(2004~ 2008년)의 복지 로드 맵을 수립하여 발표한데 이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교육복지 부문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회개발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사회 정책으로 변모하였다.

- 교육복지 분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2007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9개교** 신설, 만 5세아 무상교육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10만명(2006년)**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 현재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부처 및 민간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을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할 계획임.

동절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집중상담 실시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대도시 지역의 거리 노숙인 및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 중순경에 거리 노숙인이 많이 있는 서울역 주변 등에서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집중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부근 상담보호센터 내에 여성 거리노숙인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 이들이 목욕·세탁 등 생활상의 편의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정부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무료진료소 4개소에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일제상담기간 동안, 상담보호센터, 쉼터, 쪽방상담소, 부랑인 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초기 밀착상담을 강화하여 이들을 쉼터 및 적정시설로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거리 노숙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노인 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운영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신고·상담이 가능한 학대노인 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 설치하여 전문 상담원 3명 이상 배치, 학대사례조사, 응급보호조치 및 상담 등을 실시함.
- 상시 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 운영하여 국번 없이 전국단일 특수번호 「1389」사용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토록 24시간 hot-line 운영함.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대전시(10월5일)를 시작으로 전국의 7개 대도시 지역에서 10월 한 달간 릴레이(Relay) 식으로 열렸으며, 내년부터는 도(道)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금년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 및 교통지킴이 등 내년부터 신규로 공공부문 일자리에 참여할 노인들을 모집할 계획임.
-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800여 업체가 참여하여 55세 이상 고령자 9천여명이 일 자리를 얻게 되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짐.

『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실시

보건복지부는 제8회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 4천여 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갖았다.

- 노인복지유공자에 대한 훈포상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장수지팡이 청려장, 공로상 등을 증정함.
- 10월 1일부터 KTX 및 새마을호에 대해 주중 30% 할인제도를 실시함

지난 한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총 144,623명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한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 자원봉사자는 총 144,623명으로 2002년 71,521명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봉사자를 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여자가 전체의 68%로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및 20대가 58%에 달하여 중·고등학생과 젊은층이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주부들이 7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봉사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자 1인이 한 해 동안 활동한 평균 봉사시간은 23.82시간, 평균 봉사 횟수는 6.88회로서, 봉사자는 평균 두 달에 한번 3.5시간씩 활동하고 있었음.
- 주요 봉사활동은 요보호대상자 식사보조·목욕·청소·간병·이미용 등 생활지원서비스가 전체 봉사활동의 52%를 차지했으며, 이어 학습지도 등의 교육지원 서비스, 상담·말

벗봉사 등의 정서지원 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2004년도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 신규과제 확정

보건복지부는 한방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 기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의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4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신규과제로 선정된 4과제에 향후 3년간 연간 최대 5억원씩 연구비가 지원되므로, 2~3년 이후에는 한방 바이오퓨전 연구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추진의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지켜보며 조만간 2005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기획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국제 연수프로그램」 설치·운영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제도 아·태지역 전파 본격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 2주간의 과정으로 「건강보험 국제 연수프로그램」(영문명칭: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in Korea**)을 설치·운영한다.

- 동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및 WHO/WPRO(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UNESCAP(유엔 아시아 경제사회 이사회) 등 국제 기구와의 공식적인 협력 하에 실시되는 건강보험 분야 국제 연수 과정임.
- 이를 통해 국제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자원조달, 진료비 지불제도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전수 뿐 아니라, 한국의 제도내용 및 운영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참가 국가들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가사·간병 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추진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교육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 중인 가사·간병 자활사업 참여자 4,5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선정된 5개 기관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참여자에게 전문 간병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간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등 사업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게 됨. 또한 동 기관은 담당기능 및 권역의 범위에 따라 설치비, 운영비, 사업비의 총 예산 18억을 차등 지원받게 됨.
- 동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성과가 크게 주목됨.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전개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하여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4년에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300명에게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2005년에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연간 약 10만명의 흡연자들에게 금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사에 의한 흡연상담(행동요법) 및 약물요법(패치, 부프로피온 등)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금연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통하여 자발적 의지로 금연하지 못하는 많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도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득 역진성 문제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성 접촉을 통한 에이즈(HIV/AIDS) 감염 계속 증가 중

2004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내국인 신규 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455명이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304명 모두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이성 간 성 접촉 155명, 동성 간 성 접촉 149명) 2004년 9월말 누적감염인은 2,994명에 이른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성 접촉을 통한 에이즈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적인 에이즈 예방수단인 콘돔사용 촉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를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한 콘돔사용 홍보, 보건소에서의 콘돔홍보, 콘돔비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감시 강화

최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재 발생하고 있고,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국가 여행자에 대해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검역 질문서 창구와 열 감시등 검역조치를 취함.
- 대유행 대비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감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간 단위 감시체계(630개 병·의원)에 더하여 금년 9월부터 국내 10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일일감시체계를 운영 중에 있음.
- 국내 감시전문가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로 파견하여 해외 동향을 감시하게 할 예정임.